



타이거 우즈가 18일 미국 일리노이주 메디나 골프장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 1라운드 18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는 가운데 라운드 내내 거의 대화를 하지 않은 동반 플레이어 필 미켈슨(가운데 검의 상의)이 무심한 듯 페어웨이를 쳐다보고 있다. /AP=연합뉴스

‘골프황제’ 우즈-‘왼손지존’ 미켈슨
세기의 대결 일단 ‘무승부’

PGA 챔피언십 첫날 69타 공동 10위·최경주·허석호는 부진

‘세기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왼손지존’ 필 미켈슨(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 첫날 맞대결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우즈와 미켈슨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메디나의 메디나골프장(파72.7천561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동반플레이를 펼친 끝에 나란히 3언더파 69타를 쳤다.
공동선두 루카스 클로버(미국)와 크리스 라일리(미국·이상 66타)에 3타 뒤진 공동10위에 이름을 올린 우즈와 미켈슨은 이로써 시즌 두번째 메이저 왕관을 놓고 치열한 경

쟁을 예고했다.
올해 열린 3차례 메이저대회에서 각각 1승씩을 나눠가진 미국에서 가장 많은 골수팬을 거느리고 있는 우즈와 미켈슨은 구름처럼 몰려든 관중 앞에서 10번홀(파5)부터 경기를 시작했다.
평소 냉랭한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예상대로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호사가들의 ‘기대’와는 달리 신경전은 없었다.
미켈슨은 “재미있었다”고 말했고 우즈는 “오늘 경기를 잘 치렀다”고 짧막하게 언급했다.
우즈와 미켈슨의 동반 플레이에 동참한 US오픈 챔피언 조프 오길비(호주)는 “내 생

전에 이렇게 많은 사진기자와 갤러리는 처음 봤다”면서 “둘은 서로를 존중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순위표 상단은 예상 밖의 인물이 꿰찼다. PGA 투어에서 단 1승 밖에 올리지 못한 클로버와 라일리는 6언더파 66타를 뺏아내 선두에 올랐지만 마지막날까지 선두권에서 살아 남을 지는 미지수.
노장 빌리 앤드레이드(미국)가 5언더파 67타를 쳐 3위에 올랐고 투크 도널드(잉글랜드), 스투어트 싱크, JJ 헨리, 데이비스 러브3세(이상 미국), 로버트 앨런비(호주), 헨릭 스탠센(스웨덴) 등이 4언더파 68타로 공동4위 그룹을 형성했다.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1오버파 73타로 부진해 80위권으로 밀렸고 허석호(33)는 2오버파 74타를 쳐 컷오프 위기에 몰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고 권위 ‘한국오픈’ 재개

10년만에...내달 11일 예선 개최

올해 50회째로 한국골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코오롱-하나은행 한국오픈 골프대회가 10년만에 예선을 치른다.
한국오픈을 주관하는 대한골프협회는 9월1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오션코스(파72)에서 18홀 스트로크플레이

방식으로 예선대회를 열어 상위 입상자에게 9월21일부터 총남 천안 우정힐스골프장에서 개막될 본선 출전권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골프협회는 1997년 이후 대회 경비 조달과 개최 장소 섭외 등에 따르는 어려움

탓에 본선 출전자를 가리기 위한 예선대회를 열지 못했으나 대회의 권위와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예선을 부활했다.
예선전 상위 입상 선수에게 주어지는 본선 출전 티켓은 출전권을 이미 확보한 이른바 시드권 선수와 초청선수 등을 뺀 10장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오픈 본선 출전권은 과거 5년간 우승자를 비롯해 한국프로골프 시드순위 60위 이내 선수, 아프로골프투어 시드순위 60위 이내, 그리고 협회가 정한 아마추어대회 우승자, 국가대표 선수 등에 예선없이 주어진다.
/최재호기자 lion@

MLB “이승엽 잡아라”

뉴욕 양키스·LA다저스 이어 피츠버그도 영입 경쟁 돌입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올 시즌 후 미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 영입을 희망하는 구단 후보로 떠올랐다.
피츠버그의 지역지 ‘포스트 가제트’는 18일(한국시간) 피츠버그가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1루수 이승엽 영입 경쟁에 나선 구단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내년 시즌 전력 보강을 꾀하는 피츠버그의 투이 엘워워 단장 특별보좌역 등 구단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요미우리-히로시마 도요카프 경기가 열린 히로시마 시민구장을

직접 찾아 이승엽 경기를 지켜보는 등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 언론은 지난 주까지 36홈런에 타율 0.324, 79타점을 기록한 이승엽이 오 사다하루(王貞治) 소프트뱅크 호크스 감독과 터피 로즈, 알렉스 카브레라가 세운 일본 한 시즌 최다홈런기록(55개) 경신에 도전하고 있고 한·일 통산 400홈런을 돌파했다고 소개했다.
이승엽이 미국 진출 시 몸값이 3년 간 2천1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피츠버그가 이승엽 영입에 적극 나설 지는 미지수다. 앞서 뉴욕 양키스와 LA 다저스가 이승엽 영입에 관심을 드러냈고 요미우리도 이승엽 잔류를 위해 3년 간 10억엔 내외의 대형 계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리그 “★중★가리자”

내일 밤 인천서 올스타전 자선행사 등 팬서비스 무짐

‘별들의 축제’ 2006 삼성하우젠 K-리그 올스타전이 20일 오후 6시 인천 문학월드컵 경기장에서 화려한 식전 공개행사와 함께 킥오프된다.
낮 12시부터 경기장 동쪽 광장에서 ‘K-리그 올스타 사랑의 자선 바자’를 시작으로 식전행사가 시작되는 올스타전은 ‘올스타 팬사인회’와 록밴드 노브레인의 K-리그 송 발표회, 올스타 릴레이 등 다양한 행사로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예정이다.
전날인 19일에는 올스타 선수들이 직접 축구 꿈나무에게 축구기술을 가르치는 ‘하우젠 올스타 클리닉’이 펼쳐지고 이후 인천

의 아동양육시설인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사인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개인 통산 두 차례나 올스타전 팬 투표 1위를 차지한 ‘진공청소기’ 김남일(29·수원)이 여섯 번째 올스타전 출전을 맞아 첫 올스타전 MVP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중부팀(대전, 서울, 성남, 수원, 인천, 대구, 전북)과 남부팀(광주,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제주, 포항)으로 나뉘어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선수는 총 36명이다.
역대 올스타전에서 통산 최다 MVP를 차지한 선수는 이동국(포항)으로 올스타전에 서만 통산 9골을 터뜨려 ‘미스터 올스타’란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동국이 무릎부상으로 올해 올스타전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별 중의 별’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불꽃을 튀게 됐다.
지난 2000년 올스타전에서 골키퍼 김병지가 MVP를 타낸 이후 최근 5년간 MVP는 공격수들의 독차지였다.
기자단 현장투표로 뽑히는 만큼 다득점에 성공한 선수에게 대부분 상이 돌아갔던 것.
과연 올해에는 김남일, 백지훈(서울), 이관우(수원), 김두현(성남), 안영학(부산) 등 K-리그를 대표하는 미드필더들이 MVP를 거머쥌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영표 선발...박지성·설기현은 벤치”

영스카이스포츠 베스트 11 전망

영국 축구 전문사이트 스카이스포츠(www.skysports.com)가 2006-2007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이틀 앞두고 전망한 올 시즌 각 팀별 ‘예상 베스트 11’에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설기현(레딩)을 제외하고 이영표(토트넘)만 왼쪽 윙백에 포진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스카이스포츠는 18일(한국시간) ‘Premiership season preview(프리미어리그 시즌 전망)’ 기사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의 올 시즌 전망과 함께 예상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스카이스포츠는 우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올 시즌 4위를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팀내 최다골 후보로 웨인 루니를 꼽았다. 하지만 스카이스포츠는 올 시즌 맨유의 ‘베스트 11’을 예상하면서 루니와 루

이 사이를 투톱으로 4명의 미드필더진에 왼쪽부터 라이언 깁스, 폴 스콜스, 마이클 캐릭,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배치했다. 박지성은 교체 멤버로 본 것이다.
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데뷔한 설기현 역시 시즌 개막전 연습경기에서 보여준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스카이스포츠가 예상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편 스카이스포츠는 안드리 셉첸코와 미하엘 발라크 등 ‘스타 영입전’을 펼친 첼시가 올 시즌 우승을 차지해 프리미어리그 3연패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추신수 방망이 ‘침묵’

미네소타전 4타수 무안타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방망이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추신수는 18일(한국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허버트 험프리 메트로돔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와 맞붙은 경기에 우익수 겸 5번 타자로 선발출장해 삼진 2개를 포함해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시즌 타율은 0.312에서 0.294로 떨어졌다.
추신수는 2회 첫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고 팀이 3-1로 앞서던 3회 초 1사1루에서도 삼진으로 아웃됐다.
6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2루 땅볼에 그쳤고 8회 마지막 타석에서도 3루 땅볼로 고개를 떨궜다.
클리블랜드는 9이닝을 7안타, 2실점으로 막은 오픈스 투수 플 버드(36)의 완투에 힘입어 3-2로 이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9일(토) ▲PGA 투어 PGA 챔피언십 2R(06:00·SBS스포츠)
▲메이저리그<콜로라도-뉴욕M>(08:00·Xports)
▲월드리그 국제 남자배구대회 1차전(쿠바-대한민국)<09:40·KBS SKY SPORTS>
▲봉황대교 교교야구(15:30·KBS SKY SPORTS)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주니치>(17:50·SBS스포츠)
▲월드그랑프리 배구대회<일본-대한민국>(18:00·KBS SKY SPORTS)
▲프로야구<KIA-롯데>(20:00·KBS SKY SPORTS), <두산-삼성>(18:30·MBC ESPN)
▲06/07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레딩-미

들스브로>(23:00·MBC ESPN)
20일(월) ▲06/07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볼튼-토트넘>(01:00·MBC ESPN)
▲메이저리그<뉴욕Y-보스턴>(02:10·Xports), <클리블랜드-탬파베이>(08:05·Xports)
▲PGA 챔피언십 3R(02:40·KBC)
▲PGA 투어 PGA 챔피언십 3R(06:00·SBS스포츠)
▲월드리그 국제 남자배구대회 2차전(쿠바-대한민국)<09:40·KBS SKY SPORTS>
▲프로야구<KIA-롯데>(16:30·KBS SKY SPORTS), <두산-삼성>(17:00·MBC ESPN)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주니치>(17:50·SBS스포츠)
▲06/07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유td-풀럼>(21:30·MBC ESPN)
21일(월)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탬파베이>(02:05·Xports)
▲PGA 챔피언십 4R(02:55·KBC)